

신앙공동체 보고

김태인(국어국문창작학과)

“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군중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.”

마가복음 6장 34절

측은히 여기시어: σπλαγχνίζομαι

“창자가 끊어지다”

대학 청년들의 어려움

1. 진로
2. 학업
3. 연애
4. 부모(가정)
5. 코로나로 인한 단절

국어국문창작학과 신앙공동체의 특징

1. 교회에 다니기는커녕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친구들**만** 모였습니다. (의도한 것은 아닙니다)
2. 제가 방학 때 진행하는 철학 스터디의 멤버들이 대부분 들어왔습니다. (진리에 대한 궁금증?)

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.

1. 인문학과 성서를 연결시키기
2. 먹기
3. 놀기

1. 인문학과 성서를 연결시키기

이제까지 했던 특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1. 창조설화와 노동, 한나 아렌트의 <인간의 조건> 다시 읽기

2. 성서는 어떻게 다른 목소리를 낼까?

(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 설화의 차이)

3. 언어학이 기독교론과 만날 때(문법화의 관점에서 본 저기독론과 고기독론)



2. 먹기

공동체는 잘 먹어야 합니다. 특히 먹는 날 우리는 누구든지 오라고 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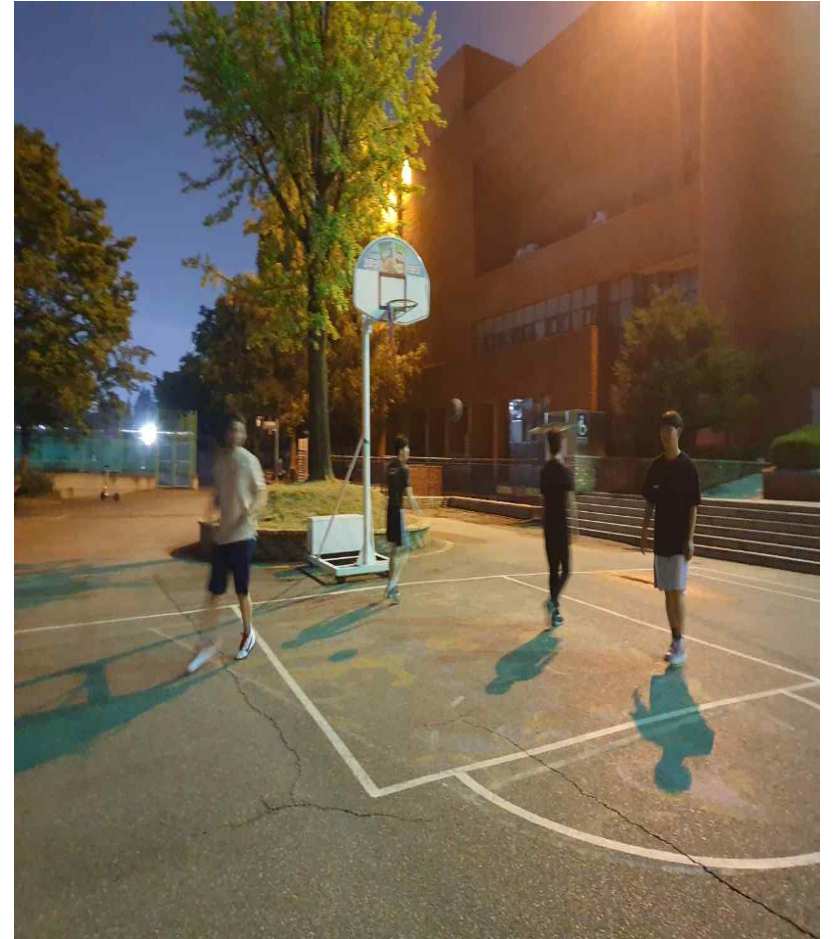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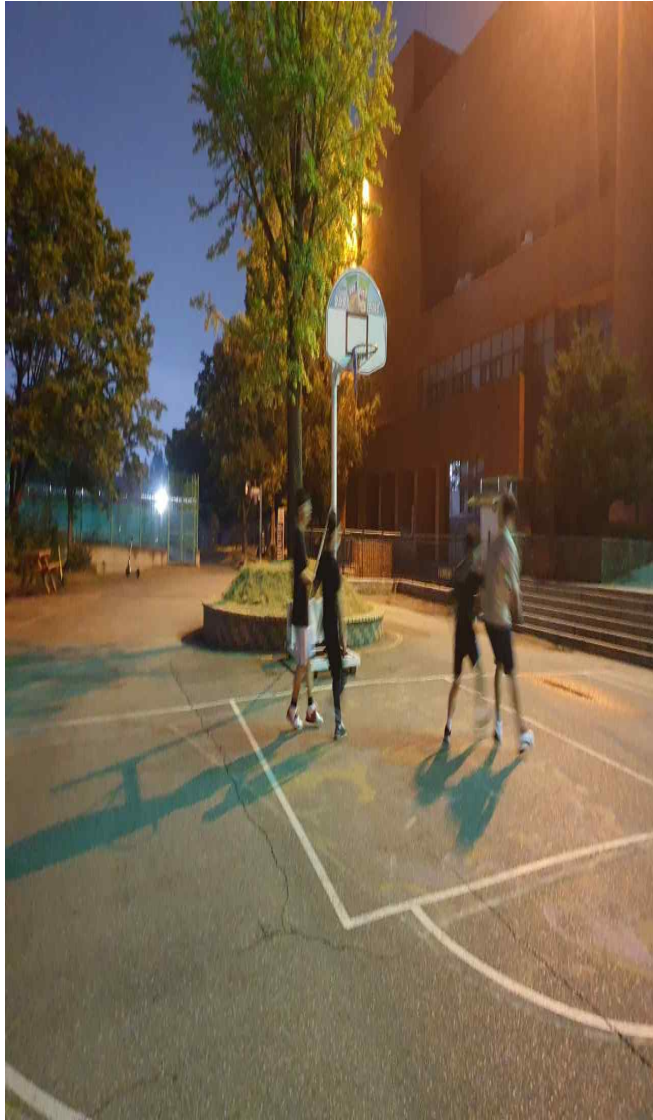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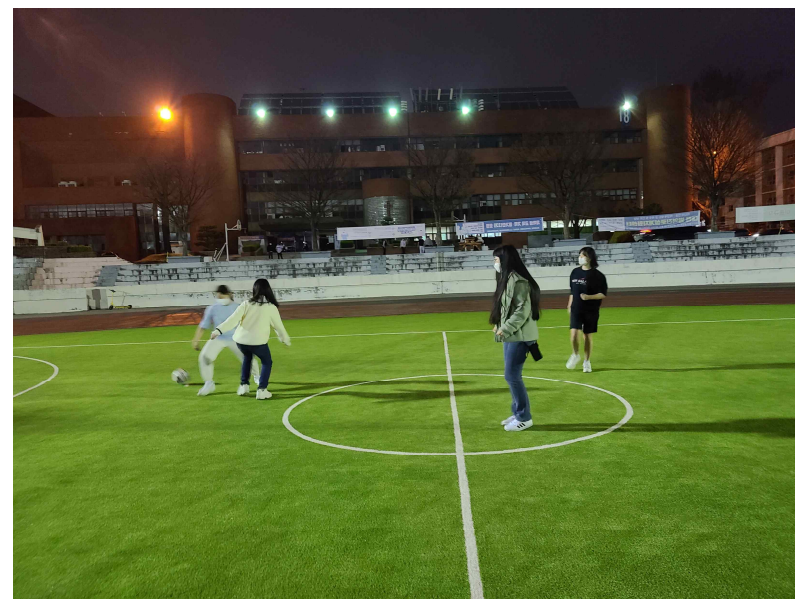
3. 놀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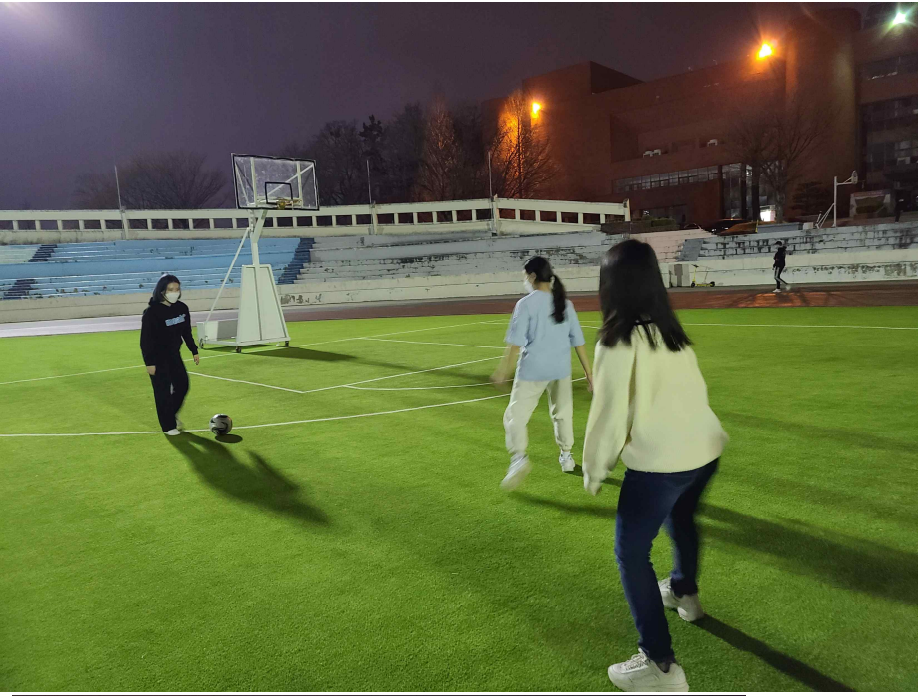
저는 신앙공동체를 주축으로 ‘야농자’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.
학과 조교에게 부탁해 전체 카톡에 공지를 돌렸습니다.
목요일 밤 8시에 학교 대운동장 앞 농구장에서 모여 밀도 끝도 없이

눕니다. “야, 농 구하고 자 자!”

지금은 이 프로그램이 아주 잘 정착해서 학과 차원의 프로그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







신앙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학과 내의 코로나로 단절된
관계(선생님과 학생, 선배와 후배, 신입생 친구와 친구)를
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

감사합니다!